



#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의 발전 가능성과 현안 과제



## 1.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위상과 한국어 학습 열기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영토가 큰 국가이다. 1992년 한국과의 수교 이후 꾸준하게 양국관계는 발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의 K-POP, 영화, 드라마를 통한 한류의 인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 오랜 시절 한국에 대해 기억하는 이들은 북한이 제작한 영화 <홍길동>을 회상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인상 깊게 남긴 한국의 영화를 꼽는다고 하면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태극기 휘날리며>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38선”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인 위치



**임길호**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실장

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한 위치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지리적인 위치에서 역사 속에서 잦은 강대국들의 침략과 지배를 겪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형성이 된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서에는 한국인들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유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상당히 감성이 풍부하고 한국인들의 정과 유사한 끈끈한 타인에 대한 유대감이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아픔을 마치 우크라이나 자신의 역사적 아픔과 같이 느끼면서 감동을 이야기한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는 지리적으로 막연하게 멀리 떨어진 아시아 동북아에 위치한 국가는 아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례로 한국교육원을 통하여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는 2017년 개원 당시 1백 명에서 현재는 4백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은 매년 증가하는 한국어 수강생으로 인한 강의실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1년에 2회 개최되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한국어능력시험은 키이우, 드니프로, 오데사 3곳의 시험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치

르는 시험생의 동기는 한국어 실력 측정, 한국어 유학, 기업체 취업 등 이유는 다양하다.

러시아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한국어 강좌와 한국어능력시험은 전면 취소되었다. 하지만 전시 기간에도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전시 중의 스트레스를 한국어 학습을 통하여 해소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취미의 수준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동반자가 되었다.<sup>1)</sup> 언어의 영역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와 한국에 인기를 반영하듯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새로 개편되는 초중등 9학년, 10학년, 11학년 지리와 역사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학습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과과정에 포함하였다. 과거 아시아 중심국가로 중국, 일본, 인도 3개국만이 반영되었으나 한국을 포함하여 최신의 경제발전 자료를 소개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세계사의 경우 한국동란과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한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이 초중등 교과과정에 포함되었으며, 새로 개편된 교과과정은 우크라이나 교육부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경제재건과 발전을 위한 모델이 되는 국가로 강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과거 한국이 지나

1)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하리키우는 러시아의 침공초기 미사일공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이며 지하철 대피소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애절한 사연을 수강생이 한국교육원에 보내왔다.

온 경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붕괴 이후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주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환하는 과정에 많은 정책적인 시도와 시행착오가 있었다. 전쟁 이후 복원사업에서 한국의 전후 경제발전의 경험은 훌륭한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해 친숙함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고려인들을 통해 받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작용하고 있으며 고려인들이 전달해 준 “마르코브카 보 코레이스키(한국식 당근 셀러드)”를 모르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없다. 현재 하리키우 우크라이나에 “정수리” 민족학교 1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려인들은 현재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미콜라예프, 자포리지아, 크림반도에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시작된 동남부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려인들의 한국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더욱 많은 고려인이 한국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어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된 곳은 3개교가 있으며, 최근 들어 한류의 영향을 반영하듯 한국어과 입학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를 정규과정으로 개설하거나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는 초중등학교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어학연수를 포함하여 학부, 석박사 과정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희망

하는 전공 분야도 인문, 상경, 예술, 이공, 의학까지 다양하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에 유학을 오는 한국 유학생의 가장 선호하는 전공 분야는 의학 분야이며 이밖에 인문과 이공계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옛 소련 시절 집중적으로 조성된 항공우주와 군수산업의 영향을 받아 기초과학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마리나 비아조프스카 교수도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 2.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을 향한 교육개혁과 실용 외국어교육 강조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의 잔재를 벗어나 유럽 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유럽연합 가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옛 소련 시절의 교육제도에서 초중등은 11학년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교육개혁을 통하여 유럽연합의 제도에 맞추어 12학년 제도로 개편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12학년의 교과과정이 적용되는 학년은 2029년 이후에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2019년 9월 신학기부터 “새로운 우크라이나 학교”로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초중등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학제 개편에 따라 초등학교 4년(6살에 입학) → 중등학교 5년 → 고등학교 3년으로 개편이 되었다.

각 단계 졸업 시에 국가시험이 있으나 초등학교 졸업 국가시험은 단지 모니터링을 위하여 진행한다.

“새로운 우크라이나 학교” 추진하는 주요 교육 개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비판적인 사고 양성, 2) 애국심 함양, 3) 창의성, 직업의 경쟁력과 평생교육 배양 등이다. 개인의 능력배양 수준에서 강조되는 중요 목적은 1) 모국어로서 우크라이나어 능력배양(우크라이나 소수민족 해당)<sup>2)</sup> 2) 외국어 능력배양, 3) 평생학습 능력배양, 4) 사회성과 시민으로 능력 함양, 5) 과학과 기술지식 기초 강화 등이다. 새로운 교육개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부분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몇 개의 문항에 학생이 정답을 적는 것보다는 학생 자신의 능동적인 학습 능력과 동급생들과 함께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시된다. 또한 학생들을 시험 점수를 통한 일방적인 서열화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맞추어 학업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sup>3)</sup>

새로운 교육개혁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51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타인과 분쟁 시에 평화적인 해결 능력, 예술작품에 대한 공감 능력, 문학작품 낭독 등이 다양한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습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주말 과제는 철저히 금지되며, 평일 수업과제는 학생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과제를 제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새로운 교육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의 실질적인 활용 능력이다. 과거의 주입식에 의존한 일방적인 지식습득을 탈피하여 실생활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교육개혁을 통하여 옛 소련 시절의 집단중심적인 학습에서 학생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과 소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연대적인 소통이 강조되며, 학습교재 결정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현행 교육개혁에 따르면 각 해당 과목 교과서와 학습 자료의 선택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학교장보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결정이 우선이다. 심지어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학업 계획을 작성하고 학교 교사협의회의 허가를 받아 특정 과목을 학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가르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up>4)</sup>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교육

2) 우크라이나의 소수민족은 자신의 모국어를 학습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공식 언어인 우크라이나어 수업이 가능하다. 소수민족은 초등학교에서 자신들의 모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중등학교부터 우크라이나어로 수업하는 과목들을 학습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우크라이나어로 수업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새로운 우크라이나 학교: <https://mon.gov.ua/ua/tag/nova-ukrainska-shkola>(검색일:10월 22일)

4) “교육개혁, 향후 10년간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https://nv.ua/ukraine/events/novaya-ukrainskaya-shkola-cto-eto-takoe-i-cto-nuzhno-znat-novosti-ukrainy-50039251.html>(검색일:10월 25일).

예를 들어, 학부모가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 교사협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아이를 직접 가르칠 수 있다.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은 단순 암기지식이 아닌 상황에 맞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인 지식의 강조는 우크라이나의 초중등 외국어교육 정책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우크라이나의 초중등 제2외국어 교육은 과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던 것을 개정에 따라 중등학교가 시작하는 5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새롭게 개편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초중등 외국어 교과과정은 유럽연합의 평가 기준(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에 맞추어져 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유럽연합의 외국어 평가 기준의 B1 또는 B2 수준 상당의 실력을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반 정규과정의 외국어를 학습한 경우 B1 수준을 요구하며, 한국의 외교와 같이 특정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교의 경우 졸업 시 B2 수준을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2003년부터 외국어교육 교과과정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언어교육을 추진해왔다.<sup>5)</sup> 옛 소련 시절 암기 위주의 외국어교육을 탈피하여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다.

### 3. 우크라이나에서 초중등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

우크라이나 교육부에 초중등 한국어 교과과정이 정식으로 등재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교육부 공식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어를 정식 개설하고 있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초중등학교는 키이우 동양어 학교이며 옛 소련 시절에 개교하여 이미 8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 소개한 하리키우에 위치한 정수리 학교가 있으며 키이우, 드니프로, 오데사에 한국어를 개설하여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8개 초중등학교가 있다.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은 초중등의 한국어 보급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초중등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제작해왔으며 현재는 초중등에서 활용할 통일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의 통일화는 초중등에서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한국어 채택을 희망하는 초중등학교에 신속한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구의 계명대와 공동으로 초중등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미래의 한국어 교사와 현직 교사의 한국어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초중등 한국어 교사를 할

5) 우크라이나 교육부 소수민족과 외국어교육 담당 코발렌코 과장은 면담에서 2000년대부터 유럽연합에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용적인 외국어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현장에서 화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외국어교육을 전환해왔다고 설명한다. 코발렌코 과장은 우크라이나 대표로 유럽연합 외국어교육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수 있는 자격조건을 매우 완화하였다. 이제는 대학에서 한국어 학사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공에 상관없이 한국어 실력을 보유한 비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도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교사 조건 완화의 이면에는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초중등의 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양호하지 않은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대졸자의 대다수는 급여와 처우가 양호한 개인 기업을 보다 선호하며, 국가공무원을 희망하는 젊은 졸업자들은 매우 극소수인 것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초중등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sup>6)</sup>

물론 한국어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한국어가 정식으로 개설된 대학은 수도 키이우에 2곳과 최근 개설된 오데사 1곳을 포함하여 모두 3곳의 대학이 있으나 초중등 한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졸업자는 매우 극소수이다.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도 초중등 한국어 교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공과 관계없이 한국어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경우 한국어 교사로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한류와 한국에 관한 관심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초중등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에 맞추어 한국 유학 희망자들을 위한 한국어 특별반 개설도 검토 중이다. 특별반 개설을 통하

여 한국 유학에 필수적인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에서 4년 동안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과 4급은 무난하게 취득하는 만족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은 정규과정과는 별도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동영상대회와 같은 각종 경연대회 개최와 한국어 쓰기와 한국능력시험 특강을 운영해왔다. 한국교육원은 우크라이나 교육부와 동일하게 한국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말하기와 같은 실용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어 회화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4. 맺음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국가이다. 이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게 배우려는 학습자들이 늘고 있다. 전쟁 중에도 수도 키이우에서 유일하게 영업하고 있는 한국식당은 우크라이나 젊은 층 손님들로 붐비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이들은 이미 한국을 알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더욱 느끼

6) “왜 우크라이나에서 교사의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가?” <https://tsn.ua/ru/ukrayina/chtoby-pokryt-deficit-nuzhno-42-goda-pochemu-v-ukraine-vymiraet-professiya-uchitelya-1638790.html>(검색일: 10월30일)  
우크라이나 교육부도 초중등 교사의 급여상향조정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월 200불미만의 급여조건에 대다수 대학졸업자들이 초중등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이다. 대학입시의 경우 인기가 있는 경영, 마케팅과 같은 상경계열의 학과 입학은 주로 선호하고 있으나 물리, 화학 등의 학과에 신입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고 체험하기 위하여 한식을 체험하고 싶어 하다. 과거 한국교육원에서 개최한 일일 한국영화제에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강당을 가득 채운 적도 있었다.

2017년 키이우에서 개최된 인권영화제에도 선보인 <천국의 국경>이라는 탈북민의 실상을 알리는 영화를 보기 위하여 복도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한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지속해서 늘고 있고 연령층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알리고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한국교육원이 전담해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사안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안은 초·중·등 한국어 교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해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전문적인 한국어 강좌와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를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진 확보도 시급하다. 대학에서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게나마 2021년에 키이우에서 개최되었던 “우크라이나 한국어교육자 대회”와 같은 유사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한국어 보급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 필자 소개

우크라이나 지역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교육원의 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우크라이나 초·중·등 한국어 보급과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간 초·중·등학교 교류와 대학 간의 학술교류입니다.